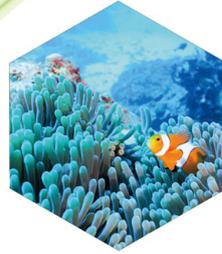


KOSEB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Newsletter 2020



No. 2
January 2020



■ 회장 인사말

회장 이임사

존경하는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2호 발행을 회원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는 1981년 창립 이래, 환경-생물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견인하는 중추적 학술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학술단체가 되는 것이 우리 환경생물학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2018-2019년 회장직을 수행한 2년 동안 우리 학회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들을 이루었습니다. BEEM 2018과 Harmful Organisms 2019와 같은 규모 있는 국제학술행사를 통해 학회 저변과 지평을 새로이 열게 되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임원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당시 500여명의 회원은 800여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우리의 구호인“천”에는 못 미쳤습니다. 머지않아 천명을 달성하고 새로운 목표가 설정될 것을 믿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의 격상과 SCI급 학술지 특별호 발간은 우리 학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적으로 학회의 흡인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술상, 신진상, 발표상을 통한 회원 격려가 학회에 대한 열정을 높임으로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를 도와 회무와 재정에 수고해주신 부회장님, 편집위원장님, 총무위원장님, 사무국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및 이사님, 그동안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면 멀리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기 리더십의 역량에 일사불란하게 참여하여 학회가 더욱 발전하고 내실을 다져서 환경생물 분야에서 국내 최고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학회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저는 다시 일반 회원의 자리로 돌아가 학회 학술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장 계명찬

Contents

• 회장 인사말...	1
• 2019 학회소식	2
• 2019 수상소감	6
• 2020 학회일정	8
• 학회역사	8
• 기관소식	8
• 회원동정	9
• 한국환경생물학회 임원명단	10
• 공지사항	11



한국환경생물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발행일] 2020년 1월 11일

[발행처] 한국환경생물학회

061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역삼현대벤처빌 1514호

Tel. [070]8825-5449 E-mail. koseb@naver.com Homepage. http://www.koseb.org/

[발행인] 계명찬

[뉴스레터편집위원장] 백승호, 이강현



회장 취임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원장 최종순(제17대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생물학회 제 17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최종순입니다. 오랫동안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명성을 지켜 오신 전임 회장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환경생물을 대표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출연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난분석과학 연구개발 사업을 8년째 책임자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출연연구원에서의 오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생물을 학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축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학회는 인간 활동의 자연 생태계 교란의 문제점들을 학술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교류하며 필요하다면 정부 관계 부처에 필요한 연구 아젠다를 수립하고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학회는 환경생물학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정부관계기관 그리고 환경생물 관련 산업체 기관들과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환경문제 해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의 전문 학술지인 '환경생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향후 'Harmful Organisms'를 우리 학회의 대표 국제 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새로운 학회 임원진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자연과 인간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지속 발전 가능한 학회'로 거듭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2020년은 풍요와 희망, 기회의 동물인 흰쥐의 해, 庚子年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도약을 기원하면서 학회 회원님들과 가정 그리고 직장 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3일

한국환경생물학회 신임회장 **최종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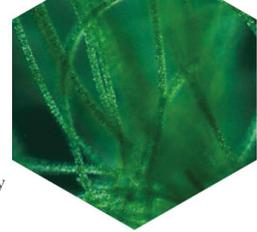
■ 2019 학회소식

2019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국제심포지움 개최: Harmful Organisms 20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백승호(총무위원장)

2019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 학술대회는 국제심포지움(Harmful Organisms 2019; 홈페이지 참조 <http://harmfulorganisms.org/index.html>) 형식으로 부산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4월 23일-27일 동안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의 주제는 'New Horizons in Harmful Organism Science'으로 육상, 담수, 해수의 다양한 유해생물을 대상으로 9개 세부 주제(Session 1: The physiological, biochemical, genetic and behavioral features of harmful alga, Session 2: Current statu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of drifting macroalgal blooms, Session 3: Jellyfish blooms in the East Asian Seas, Session 4: Entomological research on harmful organisms in agriculture and vector-borne disease, Session 5: (41th Yonsei Tropical Medicine Symposium) Harmful organism of medical importance, Session 6: Ecological, economic and human health impacts of invasive alien plants, Session 7: Waste to Resources: Emergent Materials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s, Session 8: Application of Integrated Mosquito Management (IMM) in South Korea and Southeast Asia, Session 9: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associated microorganisms including harmful organisms)와 함께 환경생물 A (내분비교란)와 환경생물 B(통합)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특별초청강연에서는 일본 북해도 대학 Ichiro Imai 교수 "The occurrence mechanism of fish-killing red tides of *Chattonella* (Raphidophyceae) and successful trial of environment-





friendly prevention strategies using diatoms”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희목 박사 “A new horizon of cyanobacterial bloom control and its biomass utilization”와, 히로시마대학 Uye Shin-ichi 교수 “Harmful jellyfish blooms in the East Asian Seas: Is our ocean more gelatinous?”의 발표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학회의 참석인원은 정회원 68명과 함께 학생회원 38명, 그 외 국외 초빙된 연사 및 발표자가 31명, 총 137명이 등록 집계되었다. 국가별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호주,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9개 국적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석하였다. 국제 심포지움에서 우수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최우수(구두, 포스터 각 1명) 30만원의 상금, 우수(구두, 포스터 각 2명) 20만원의 상금, 장려상(구두, 포스터 각 3명) 10만원의 상금을 기획하여 연구자를 치하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학회에서 등록된 연구자에게는 SCI 스페셜 이슈 발행을 기획하였다. 저널명은 Sustainability (2018년 기준 Impact Factor: 2.80)으로 선정되었고, 특별호 편집위원장으로 안치용박사가 초빙되었고, 각 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기장서교수, 이혁제교수, 김영필교수, 백승호박사, 유옥환박사가 초빙되었다. 논문투고는 2019년 11월부터 시작되어, 2020년 2월말경 마감하고, 2명의 전문 리뷰를 거쳐 최종 채택된 논문만 2020년 10월호에 출판하려고 한다.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광고한 Energy & Environment의 저널은 수요조사시 예상 논문 편수가 적어 특별호를 출판할 수 없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장 Letter에 Harmful Organisms 2019에 참석 및 발표하였다는 것을 강조해 줄 것을 당부 받았다.

이번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국내외 연구자 간의 학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만찬에서 성악가가 가곡이 행사의 열기를 더하였다. 이번 국제 심포지움을 계기로 2년에 한 번씩 Harmful Organisms 의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SCI 저널(Harmful Organisms)을 우리학회에서 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총연합회 학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학술단체 학술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기초학문 연구 활성화와 학술지 발행지원을 통한 우수 연구성과 확산에 기여 하기 위한 국내 학술지 지원사업과 수준 높은 국내 학술대회 개최 지원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학문교류의 촉진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지원하는 『2019년도 학술활동지원사업』에 국내 학술지, 국내 학술대회 개최 모두 선정되었다. 국내학술지는 13,940,000원, 국내학술대회는 2,440,000원을 지원받았다.

제74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제74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가 회원학회의 공동 관심사인 “생물종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용”이라는 주제로 2019년 8월 12일 -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초 강연(6), 회원학회 학술상(3:관정동물학상, 신진유전학상, 여천생태학상) 시상 및 강연, 회원학회(6)세션 및 구두발표, 생물 다양성 유관기관의 특별세션(5), 그리고 포스터세션(450여편)을 통하여 총 600여편의 주제 및 연구논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전 생물과학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자 간 의견교환 및 다 학제간 연구발전 고치는 물론 다양한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9 한국환경생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상지대학교 교수 이혜제(학술위원장)

지난 2019년 10월 18일 - 19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자연과학대학에서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로 환경, 생물, 생태 등 기초 및 응용과학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뤄진 학술의 장이었다.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장 계명찬 교수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9대 전임회장 이성규 박사님의 축사와 함께, 한양대학교 한명수 교수님께서 ‘Molecular Microalgal Ecology and Mitigation of HABs’, 해양환경연구소 채진호 박사님께서 ‘Jellyfish Bloom’, 한양대학교 계명찬 교수님께서 ‘Microplastics and Endocrine Disruptors’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 주제 관련 4개의 다양한 특별세션(국가 재난대응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기술;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기술; 생물소재 기반 환경정화 기술)이 개최되었다. 초청강연 3편, 특별세션 19편, 일반구두발표 10편 및 포스터발표 66편을 포함하여 총 99편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환경생물’ 생물다양성 분야의 많은 전문가, 연구자

및 이 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대학(원)생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새로운 학술정보교환과 함께, 특별히 차기 한국환경생물학회를 이끌어 나가실 17대 회장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종순 부원장님이 평의원회에서 선임되어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9년 환경생물학술상(상명대학교 기장서), 2019년에 새롭게 신설된 신진연구자상(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민지), 우수연구자상(한양대학교 계명찬), 학회지 표지상(KBS 신동만)의 수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양일간의 학술성과를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구두발표상(한양대학교 이재현 Dibutyl phthalate (DBP) 28일 경구 노출 (OECD TG 407)에 의한 수컷 생쥐 정자형성 및 정자의 기능의 변화), 최우수포스터발표상(고려대학교 김호선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Polyethyleneimine coated polyacrylonitrile adsorbent to control Harmful Algal Species, Microcystis Aeruginosa in aqueous solution), 우수구두발표상(상지대학교 안채희, 한양대학교 박로영), 우수포스터발표상(상명대학교 김한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상아), 장려포스터발표상(상지대학교 김유림, 가천대학교 김주영, 가천대학교 고정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수용, 한양대학교 장지현, 제주대학교 최선경)의 시상이 함께 이루어졌다. 본 학회 기간 동안 개최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학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학회에서 매년 새로운 학문적 정보와 기술을 아낌없이 공유하여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학술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하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IBI Biochar World Congress 2019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옥용식 교수(국제협력위원장)

고려대학교 한국바이오차연구센터 (센터장 옥용식 교수) 주관으로 2019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2019 국제 바이오차 학술대회 · 세계총회 (International Biochar Initiative, IBI Biochar World Congress 2019)'를 개최하였다. IBI Biochar World Congress 2019는 2011년부터 시작한 학회로 2016년 아시아-태평양 바이오차 학술대회에 이어 국내 · 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성공개최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 25여개국에서 200여편의 초록이 제출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25개국 300여명 (외국인 250여명)의 교수, 연구원, 학생, 기업체 등이 참가하였다. 옥용식 교수를 비롯한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참여하는 행사로 미국 코넬대학교 Johannes Lehmann 교수를 포함한 전 세계 저명한 석학 15인과 경동그룹 CEO를 포함한 국내외 기업의 산업화 발표를 가졌고,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 8.355) 및 Bioresource Technology (IF: 6.669) 등 학문 분야 최상의 저널 또한 특별호로 발간 예정이다. IBI Biochar World Congress 2019 학회는 고려대학교를 포함해 한국환경생물학회, 녹색생산기술연구소 (GMRC), 서울관광재단 (MICE), 환태평양대학협회 (APRU) 등이 공동 주최하며, 홍콩이공대학교, 영국 바이오차 연구센터, 중국포산대학교, 중국선양농업대학교,



중국허난농업대학교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IBI Biochar World Congress 2019는 'Towards Biochar Global Market Development'라는 주제 아래 바이오차 연구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전문가, 저널 및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를 통해 바이오차에 관한 다양한 최신 연구주제를 교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차를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본 대회는 아시아-태평양을 거쳐 2019년 세계 바이오차 학술대회로 발돋움하였고,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의 바이오차 연구분야의 기술교류를 하여 관련시장의 혁신기술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BI Biochar World Congress 2019는 기초강연과 심포지엄, 구연 및 포스터 발표 등 다양한 학술세션으로 200여편 이상의 연구개발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전시, 환영만찬, 갈라디너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바이오차 연구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IBI Biochar World Congress 2019 홈페이지 (<http://biocharworldcongress.com>)를 통해 더 많은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환경생물” 학술지 소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조기종 교수(편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생물학회 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조기종 교수입니다. 환경생물 학술지에 훌륭한 연구결과를 투고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된 학술지 “환경생물”은 2019년에도 성공적으로 80편 이상의 수준 높은 연구결과들을 출판했습니다. 또한, 연구성과가 더 많은 연구자와 공유되고 논문의 가독성이 높아지도록, 계획되었던 학술지 디자인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환경생물 학술지는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술적 기여 덕분에, 지난 2년간 크게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새해에는, 환경생물 학술지의 학술적 성장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연구결과 발표와 학술적 논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투고 규정 및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정비·보완하여 회원님들께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위촉 체계를 재검토하여, 논문심사의 수준이 향상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이러한 계획들이 회원님들의 논문 투고 및 출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술지의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7권 1호

37권 2호

37권 3호

37권 4호

■ 2019 수상소감

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소감

상지대학교 교수 이혁제(학술위원장)

"상"과는 특별히 인연이 없는 저에게 한국 환경생물학회



추천으로 2018년 환경생물(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 학회지에 게재된 저와 저의 연구실 대학원생 최희규 학생이 작성한 “제한절편 길이 다형성(RFLP) 분자마커를 이용한 납자루아과 담수어류 3종의 난과 치어 종 동정 기법 개발” [36(3): 352~358] 논문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상하는 「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되어 2019년 7월 4일에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학술논문을 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으로 추천해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장 계명찬 교수님과 편집위원장 조기종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환경생물 학회지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환경생물 학회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상의 수상에 있어 다시 한번 한국환경생물학회에 감사합니다.

2019년 환경생물학술상 수상소감



상명대학교 생명공학과 기장서 교수(부회장, 기획위원장)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발전과 연구자의 학문역량을 고취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환경생물학술

상의 제2회 수상자로 본인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학술상 선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회장단과 학회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은 1996년 학부 4학년 시절 故유광일 전임회장님 재임 당시 한국환경생물학회에 가입하였고, 그 해에 겁없이 춘계학술대회 구두발표를 하면서 학회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한국환경생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환경생물 학술지에 꾸준히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왔으며, 한명수 전임회장님 재임기간(2014.1-2015.12)에는 총무이사로 봉사하며, 학회홈페이지 및 온라인 투고시스템 구축, 과총회관 사무국 개원 등 학회의



안정화에 공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보위원장, 기획위원장 및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부회장으로 학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4년여 동안 한국환경생물학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봉사하였으나, 본 학회에서 상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영예로운 환경생물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은 수생태계 유해 조류연구를 통해 150여 편의 환경생물 관련 논문을 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환경생물”에 “한강 상류 팔당댐에서 녹조 원인생물인 남조류를 형태 및 메타게노믹스 기법으로 규명”에 관한 연구결과를 게재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기존의 현미경관찰 방법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유해 남조류의 다양한 출현과 계절별 변화 양상을 메타게노믹스 기법으로 파악한 것이며, 향후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댐의 남조류 분포, 변화 양상과 잠재적 유해조류의 출현 가능성을 분자생태학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생물은 저의 시작이고, 현재이며, 앞으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생물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 추계학술대회 환경생물학술상 수상의 감격과 지난 기간 환경생물학회와 함께한 날들을 돌아보며, 기쁜 마음으로

회원분들께 수상소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신 회원님들께 많은 수상의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환경생물신진연구자상 수상소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이민지

안녕하십니까? 2019 환경생물신진연구자상을 수여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민지입니다. 이 영예로운 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신진연구자상의 의미가 좋은 성과를 냈다는 칭찬이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이 지지받지 말고 크게 성장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수여되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수여 받을 때는 기대되고 떨리는 마음이 가장 컸지만, 막상 상을 받고 메달에 새겨진 “환경생물 신진연구자상 수상자: 이민지”라는 빛나는 글귀를 보니,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상에 걸맞은 좋은 연구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듭니다. 전공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 학회활동을 시작한 곳이 한국환경생물학회입니다. 저는 해양 식물플랑크톤 생태를 전공하였지만 환경생물학회는 생태뿐만 아니라 독성, 산림, 육상생물 생태, 오염 등 모든 지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환경생물이라는 종합과학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학회를 참석하였고, 올해 환경생물학회지에 논문도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시기에 Estuaries and Coasts에 출판된 “Tidal Influences on Biotic and Abiotic Factors in the Seomjin River Estuary and Gwangyang Bay, Korea”가 이번 신진연구자상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되는 과정이지만, 이런 모든 연구활동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성과를 인정해 주셔서 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연구에 발을 담근 새내기지만, 학회에서 쉽게 되는 교수님들, 박사님들을 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명불허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들의 성과나 명성이 헛되이 얻어지지 않았기에 제가 어떤 길을

가야할지, 얼마나 더 열심히 연구해야할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수여해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와 계명찬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 학회일정

월	일정
1월	- 신년하례식 - 뉴스레터2호 발행
2월	- Sustainability 특별호 투고 마감
3월	- 논문집 38권 1호 발행
4월	- 2020 춘계학술대회 - 이사회, 임시총회
5월	- 연구윤리위원회 워크숍
6월	- 논문집 38권 2호 발행
7월	
8월	- 75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9월	- 논문집 38권 3호 발행
10월	- 2020 추계학술대회 - 이사회, 정기총회 - Sustainability 특별호 발행
11월	
12월	- 논문집 38권 4호 발행

■ 학회역사

1981. 03	한국환경생물학회 창립총회 개최 서울대 교수회관 초대 회장 정영호 선출
1983. 09	환경생물 창간호 발간
1990 ~ 1991	제2대 회장: 최임순
1992 ~ 1993	제3대 회장: 윤일병
1994 ~ 1995	제4대 회장: 위인선
1996 ~ 1997	제5대 회장: 유광일
1998 ~ 1999	제6대 회장: 최신석
2000 ~ 2001	제7대 회장: 김주필
2002 ~ 2003	제8대 회장: 전계식
2004 ~ 2005	제9대 회장: 이성규
2006 ~ 2007	제10대 회장: 이진환
2008 ~ 2009	제11대 회장: 장 만
2010 ~ 2011	제12대 회장: 김진규
2012 ~ 2013	제13대 회장: 오희목
2014 ~ 2015	제14대 회장: 한명수

2016 ~ 2017 제15대 회장: 배연재

2018 ~ 2019 제16대 회장: 계명찬

2020 ~ 2021 제17대 회장: 최종순

■ 기관소식



‘국민안전 분석기술 개발사업’ 기관 대표 주요사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 중 순 책임연구원

2007년 서해 유조선 허베이스프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2011년 동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매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녹조, 적조, 인수공통전염병 등 생물재난은 급세기 들어 난제 중 하나로 등장했다. 이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012년 재난분석과학연구단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생물재난 관련 재난분석과학연구 사업을 본인이 총괄 책임자로 수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환경생물학적 재난의 원인분석이외에 조기 진단과 방지책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식수오염원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소재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본 사업의 특징은 현장적용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로 함께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로 2개의 연구소기업 ((주)바이오3S, (주)제론바이오텍)을 설립하여 산·학·연 협력 시스템으로 R&BD 과제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



해양생태계교란유해생물사업단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기술개발’ 착수

협동연구책임자 상지대학교 생명과학과 이혁제 교수

(주관연구책임자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재연 센터장)

기후변화, 해양오염, 해양이용의 증가 등에 의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교란·유해해양생물의 출현 종수, 발생량과



빈도, 분포범위,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양생태계 교란 및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분포 및 생태정보 자료를 확보하여 표준화된 DB를 구축하고, 관리종 표준 모니터링 기법, 관리종의 조기탐지, 패류독소의 신속분석법, 해파리 및 저서동물의 피해 저감법, 해파리 및 해조류의 이동확산 모델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정책적 활용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여 수산피해저감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해양생태계교란유해생물사업단'은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2019.9.20-2021.12.31. 기간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 회원동정

취 임



고려대학교 배연재 교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 취임

2019년 7월 1일자로 환경부의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인 국립생물자원관장(임기 3년)에 우리 학회의 제 15대 회장을 지낸 고려대학교 배연재 교수가 취임했다. 배연재 신임 관장은 고려대학교에서 생물학 석사와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곤충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곤충연구소 소장, 한국동물분류학회 회장, 한국곤충학회 회장, 아시아저서생물학회 사무총장, 국립생태원 자문위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7년에 설립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총괄하는 연구 기관이다. 2부 10과의 직제에 약 2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관리동, 전시교육동, 자생생물소재연구동(2019년 착공) 이외에 소청도에 국가철새센터, 밀양에 자생생물증식연구센터, 미안마 수도 레피도에 한·메콩생물다양성센터(2020년 착공 예정) 등을 두고 있다. 배연재 관장의 취임을 계기로 환경부 산하 유관 기관인 낙동강생물자원

관, 호남권생물자원관(2020년 개관 예정),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증식센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보다 밀접한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생물학회로 등 국내 생물다양성 분야의 학술단체 10여개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지원함으로써 민관 소통과 협업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양대학교 계명찬 교수
대한생식의학회 제24회 회장 피선

임기 2년, 2019.1.-2020.12.

45년 역사의 대한생식의학회는 회원수 3,000여명의 과총회원학회로 국내 생식의학 및 생식생물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PubMed 등재학술지 CERM을 발행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초생식의학 및 보조생식 임상부분 학술 및 연구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이다.

정년퇴임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한명수 교수(제14대 회장)

1991.03.01.-2020.02.28.

수 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치용 박사

2019. 12. UST 우수교수상 수상

천성준 UST 박사

2019. 0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설립연구기관장상 수상

한양대학교 계명찬 교수

2019. 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 연구와 과학 대중화 강연 노력을 통해 국민생활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우수자 표창



연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종순 박사

육두구 리그난화합물의 스포츠드링크 개발 기술이전
 육두구는 'nutmeg'이라고 하는데 '사향 냄새나는 호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주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열대 우림 환경에서 서식하는 미나리아재비목 육두구과의 상록 활엽 교목이다. 육두구 열매의 씨앗은 과거 대항해시대에 유럽에서 고급 향신료로 이용되었으며 후추보다 10배 이상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한다. 이 향신료 쟁탈을 위하여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영국과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 뉴암스테르담 (지금의 뉴욕)을 영국에게 건네주고 육두구 생산지인 인도네시아 몰루카 제도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본 연구그룹은 육두구 씨앗에서 노화억제 리그난 화합물을 추출하는 기술을 이용한 스포츠드링크 개발에 적용하여 (주)매니진에 선급 5억원 기술 이전하였다. 본 핵심기술은 2016년에 육두구 화장품 개발 용으로도 기술이전하였고 2018년에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용으로 기술이전하였다. 현재 육두구 추출물의 근육재생 관련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년 초에 유의미한 결과가 획득 시, 식약처 개별인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옥용식 교수
 2019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자 선정

고려대학교 옥용식 교수는 작년에 이어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s)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CR은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자를 뜻하며 매년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를 기반으로 각 분야에서 해당 연도에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의 논문(Highly cited papers)을 기준으로 연구자를 선정한다. 옥용식 교수는 지속가능 기후환경에너지 융합기술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CiteScore 기준 환경공학 분야 118종 학술지 중 1, 2위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을 모두 역임했고,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William Mitch 교수와 함께 한태평양대학교협의회 지속가능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책임자로 총 30여개 대학과 함께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초로 환경생태 분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환경생태 분야는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총 5명만 배출된 분야로 옥 교수는 2009년 이후 Web of Science 454편의 논문 중 37편의 고인용 논문을 보유, HCP 선정율이 8.15%에 달해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전 세계 환경 분야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출간



한양대학교 계명찬 교수

(코리아닷컴 출판사) 2018.12

■ 한국환경생물학회 임원명단

임기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연번	직위	이름	소속
1	회장	최종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조기종	고려대학교
3		채진호	해양환경연구소
4		김응빈	연세대학교
5		윤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	부회장	이재석	건국대학교
8		기장서	상명대학교
9		안치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		서종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		서경석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2	총무위원장	이혁제	상지대학교



연번	직위	이름	소속
13	대외협력위원장	최윤이	고려대학교
14	재무위원장	남인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학술위원장	이두형	가천대학교
16	학술부위원장	이윤식	고려대학교
17	편집위원장	조기종	고려대학교
18	편집이사	김용은	고려대학교
19	국제협력위원장	육용식	고려대학교
20	연구윤리포상위원장	옹태순	연세대학교
21	정보위원장	최경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2	기획위원장	오유관	부산대학교
23	기획부위원장	이현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4	기획이사	이문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5	산학연위원장	류성덕	(주)이바이오젠
26	산학연부위원장	한도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7	산학연이사	반경태	(주)대한바이오팜
28	집행위원장	이강현	(주)마린엑트
29	방송홍보위원장	신동만	KBS
30	수자원위원장	원남일	K-Water
31	수자원이사	정영훈	경북대학교
32	여성과학위원장	오현주	국립수산과학원
33	여성과학이사	정형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4	응용생태위원장	옥기영	국립생태원
35	응용생태이사	최원균	국립생태원
36	해양과학위원장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7	해양과학이사	신현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8	생과협위원장	오홍식	제주대학교
39	생활화학위원장	이영주	세종대학교
40	해양바이오위원장	박상울	제주대학교
41	해양바이오이사	정다운	해양생물자원관
42	기술협력위원장	이철제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43	환경센서기술위원장	김영필	한양대학교
44	환경오믹스기술위원장	노성운	세계김치연구소
45	토양생물기술위원장	김동욱	상지대학교
46	재난분석과학분과위원장	이현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7	생물다양성및생태 모니터링분과위원장	이황구	상지대학교
49	위해식물분과위원장	홍선희	한경대학교
50	바이오에너지분과위원장	권일한	세종대학교
51	환경유전자모니터링 분과위원장	김현우	부경대학교
52	식물유전체분과위원장	천경식	상지대학교
53	감사	최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54		김동성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 공지사항

Sustainability Special issue 안내

학술지명: Sustainability (ISSN 2071-1050)

Impact Factor: 2,592 (2018); 5-Year Impact Factor: 2,801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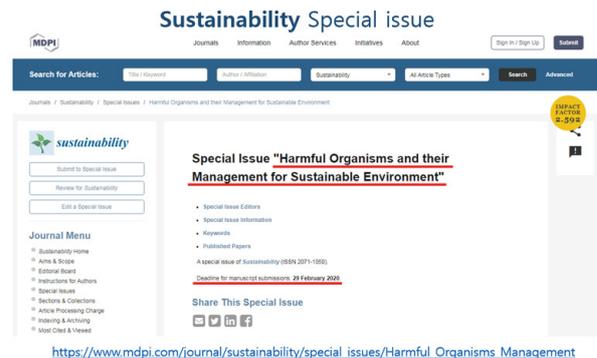
주제: "Harmful Organisms and their Management for Sustainable Environment"

논문 투고 마감일: 2020년 2월 29일

"Sustainability special issue" 홈페이지 개설

Harmful Organisms 2019 학회에 등록하신 회원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투고는 웹사이트 (<https://www.mdpi.com>)에 회원 등록하신 후 투고 가능하며, research article, review article, short communication 모든 형태의 논문 투고 가능합니다. 본 저널은 오픈액세스 저널로 게재료는 1700 스위스 프랑(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환경생물학회지 투고 안내

환경생물(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 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연 4회(3, 6, 9, 12월 말일) 발행하며, 저널 홈페이지(<http://www.ebr.or.kr/>)에 원문제공서비스를 통해 창간호부터 가장 최신 논문까지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seb.org>)을 이용하며, 투고료는 기본 6페이지(기본게재료 23만원, 추가1장당 6만원)로 기본심사료 없습니다. 심사완료 후 최종 채택된 원고는 영문제목/초록/표그림의 영문 교정서비스 무료제공합니다.

한국환경생물학회 수상요건 안내

1. 환경생물학술상:

최근 5년간 한국환경생물학회 연회비 납부자 및 3년간 환경생물 학술상 수상실적이 없는 회원, 전년도 '환경생물' 논문 게재자, 전년도 SCI급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가장 높은 IF를 받은 논문을 대표업적으로 제시해야 함.

2. 환경생물 신진연구자상(신설):

최근 3년간 한국환경생물학회 연회비 납부자 및 3년간 환경생물 신진연구자상 수상실적이 없는 회원, 전년도 '환경생물' 논문 게재자 전년도 SCI급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가장 높은 IF를 받은 논문을 대표업적으로 제시해야 함.

3. 우수연구자상:

학술 행사 시 최다 초록을 교신저자로 투고한 연구자

4. 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

학회 회원이자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

회비납부안내

한국환경생물학회 회비를 안내합니다. 우리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재정확보를 위하여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시에는 반드시 납부자의 성함과 소속기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회 원 구 분	연 회 비
학생회원	30,000원
정회원	50,000원
평의원, 학술 및 편집위원	100,000원
분과위원장, 이사, 감사	200,000원
부회장	300,000원
회 장	500,000원

예금계좌: 국민은행 461301-04-391535
(예금주: 한국환경생물학회)

후 원

개인맞춤형 생활화학제품 사용
위해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 연구단

